광양 구봉산 '파노라마 워크' 新랜드마크 기대 ↑



광양시 구봉산 정상에 조성된 체험형 조형물 '파노라마 워크'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서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사진은 시범 운영 기간에 파노라마 워크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관광객들 모습. 〈광양시 제공〉

365m 나선형 전망대 정식 운영 시작
외지 방문객 70%…관광명소 가능성
시간당 200명 사전예약제 유지 방침
주변 자원 연계 체류형 콘텐츠 확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구봉산 정상에 조성된 체험형 조형물 '파노라마 워크' 시범 운영을 마치고 10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파노라마 워크는 시와 포스코(POSCO)가 협력해 추진한 구봉산 명소화 사업의 핵심 시설이다.

포스코가 180억원을 투입해 폭 13-21m, 높이 27m, 총연장 365m의 나선형 경사로로 조성했다. 방문객들은 경사로를 따라 걸으며 광양만과 이순신대교, 광양제철소, 백운산이 어우러진 산업·해양·자연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파노라마 워크에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 4만5천913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정기 휴장과 기상 악화에 따른 휴장일을 제외한 실제 운영일 15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3천61명이 방문했다.

방문객 중 30%는 광양시민, 70%는 외지 방문객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전라권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권, 수도권, 충청권, 제주도 순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발길이 이어지며 새로운 관광 명소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시는 1회성 방문에 머물지 않고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봉산 권역을 중심으로 미식·숙박·문화 등을 아우르는 여행 콘텐츠를 확충해 방문객 이동 범위를 넓히고 지역 상권 매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식 운영에 앞서 관람객 편의와 안전을 위한 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시범 운영 기간 'MY광양' 앱을 통해 시행한 시간 당 200명 규모의 사전예약제는 입장 인원을 분산해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었으며 주차장 혼잡과 진입로 차량 정체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간당 200명 사전예약제를 유지하고 계절별 일조 시간과 이용 여건을 고려해 개방 시간을 탄력 운영한다. 동절기(11월-3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절기(4월-10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문객을 맞을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장한다.

기상 상황과 관람객 수에 따른 안전 관리 기준도 적용한다. 동시 체류 인원이 150명을 초과하거나 순간 풍속이 초속 8m 이상, 기상 여건이 악화되면 출입을 통제한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파노라마 워크는 광양 만의 산업과 해양, 자연이 빚어낸 도시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경험하게 하는 관광 자산"이라며 "더 많은 방문객이 광양을 찾아 머물며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광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광양=백상현 기자

여수시 'COP33 유치' 국제 홍보 활동 박차

서영학 시장, 튀르키예 COP31 참석
기후위기 대응·국제 협력 기반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해 국제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서영학 여수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 참석해 국제 기후 정책 동향과 COP33 유치 의사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수시는 COP31 개막식과 주요 세션을 참관하고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관계자·해외 지방정부 대표들과 다자간 회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시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COP33 유치 활동을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COP31 개최 현장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COP33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도시 기반 시설과 운영 역량을 점검해 향후 유치 활동과 개최 준비에 활용할 방침이다.



서영학 시장을 비롯한 여수시 대표단이 COP31 개최지인 튀르키예 안탈리아 엑스포센터 앞에서 사전 등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또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포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행동'에 참석한다.

서 시장은 포럼에서 여수시의 기후행동 성과와 과제를 소개하고 NDC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눌 예정이다.

이밖에 일본 도쿄, 스웨덴 말뫼 등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기후도시 글로벌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도시별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여수시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시의 기후행동 성과와 COP33 유치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흥군 '육상풍력발전 집적화단지' 추진 논의

유치면 일원 49㎿ 규모 모델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9일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유치면 대천리 일원에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 집적화단지 사업 제3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유치면 대천리 일원에 추진되는 49㎿ 규모 육상풍력발전 사업 집적화단지 신청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 참여와 발전사업 이익 공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 등 풍력발전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 분야의 실효성 있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흥군은 향후 민관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치면 육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인 김현미 부군수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의 성패는 주민 참여와 두터운 신뢰 형성에 달려 있다"며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모범적인 지역상생 발전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장흥=노형록 기자



구례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공통업종 추가

세탁소·문구점…택시 月10만원 한도
면 지역 주민도 읍 가맹점서 사용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9일 "11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면 지역 주민도 구례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업종에 세탁소와 문구점을 추가하고 택시도 월 10만원 한도 사용처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사용처 확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2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구례군은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검토해 이용 빈도가 높은 세탁소와 문구점을 공통 업종으로 추가 선정했다.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등 5개 업종에 세탁소와 문구점이 추가돼 공통 업종은 모두 7개로 늘었다. 면 지역 주민도 해당 업종에서는 구례읍 소재 가맹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택시도 기본소득 사용처에 새로 포함됐다. 택시는 읍·면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장과 합산해 월 10만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면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담양군 '고독사 위험 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역 봉사단체 3곳 참여…대청소 진행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9일 "전날 지역 봉사단체 3곳과 함께 홀로 생활하는 고독사 위험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

봉사자들은 집 안팎에 쌓인 생활 폐기물과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하고 대청소·위생 관리 등 주거환경 전반을 정비했다. 특히 지역 봉사단체들이 힘을 모아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하면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에게 이웃의 관심과 온정을 전했다.

담양군은 1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어르신의 주거 환경 뿐만 아니라, 마음 속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손길을 보태준 봉사단체에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고독사 위험 가구를 세심하게 살피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손훈모 순천시장 '생활 밀착형' 소통 행보

로컬푸드·도로관리센터서 의견 수렴

손훈모 순천시장이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9일 "최근 손훈모 시장이 순천로컬푸드 호수공원점을 방문해 장을 보며 농산물 품질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방문객들로부터 매장 이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개점 10주년을 맞은 로컬푸드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잇는 지역 먹거리 유통 거점으로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

또 손 시장은 도로관리센터를 찾아 올해 겨울 한파와 강설에 대비한 제설 대책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도로 보수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새벽 시간대 작업을 비롯한 근무 여건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가장 좋은 해법은 늘 현장 시민들의 경험과 의견 속에 있다"며 "현장에서 들은 소중한 의견을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고,시민 일상이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백상현 기자



보성군, 방송인 박미선 초청 자치포럼

20일 오후 2시 보성문화예술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9일 "오는 20일 오후 2시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방송인 박미선(사진)씨를 초청해 제385회 보성자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빛나는 오후를 위한 쉼표, 나를 돌보는 여정'을 주제로 군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성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방송인 박미선씨는 자신의 삶과 방송 활동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의 고민과 인간 관계, 삶을 대하는 태도 등을 특유의 재치와 솔직한 화법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가족과 직장 등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느라 자신의 마음을 살필 여유가 부족했던 이들에게 휴식과 자기 돌봄의 필요성을 전하고 참석자들과 웃음과 공감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임병언 기자